

中國 綬에 관한 연구

-漢 이후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崔圭順

上海 東華大學校 服裝學院 博士生

A Study on Su of China

-Focused on Evolution after Han Dynasty-

Kyu-Soon Choi

Dept. of Fashion Design of Institute, Donghua Univ.(Shanghai). Ph.D.Candidate
(2006. 6. 7 투고)

ABSTRACT

In ancient China, Su(綬) was the ornament of the full dress. It had originated from tying the jade or another thing before Jin(秦:Qin) dynasty and it tied the imperial jade seal and the chop from Han dynasty. Su of Han dynasty was different in the inscape, colour, length and density according to the grade. And the shape was the straight line. But these phenomena were changed after Han dynasty. This study showed how it changed. To studying used the comparison method of literature records, paintings and archeological relics. It mostly studied imperial Su.

Su of Han dynasty of the high grade was formed by Yeok[緹], the circle type jade and Su(Su meant whole Su, at the same time meant the part of Su, too). Afterward, Yeok was changed into Small Su[小綬] and Su was changed into Big Su[大綬]. Originally the circle type jade was connecting Yeok to Su, but it was changed into tying Small Su only. Su of Han dynasty used the four kinds of colour, but from Su(隋: Sui) dynasty used the six kinds of colour.

Originally Su was interlacing, but it was changed into the silk fabric from Song[宋] dynasty. According to using silk fabric's Su, it was likely to disappear the system distinguishing the grade by length. And it kept the method of interlacing the reticulation in the low part of silk fabric's Su. So, after using silk fabric's Su, the system of the density was not about the main body but about the reticulation. Su was been used woven with supplementary golden wefts, too.

The circle type jade was chiseled the dragon and cloud from Geum[金:Jin] dynasty. These not the pattern of silk fabrics.

Key words: Su(綬), China(中國), emperor(皇帝), full dress(禮服), interlacing(編織)

I.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祭·朝服과 같은 禮服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사용되었던 綬[後綬]는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다. 중국의 綬는 秦·漢대에 玉이나 璽印을 매던 것에서 후에 大綬와 小綬로 구별되어 明代까지 禮服의 장식으로서 계속 사용되었고,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고려시대 이후 나타난다.

“綬”字의 의미와 중국에서 綬가 사용되기 시작했을 당시의 초기 형태 등에 대한 상세한 제도적 고찰은 이미 『綬에 관한 연구-漢綬를 중심으로』¹⁾에 발표된 바 있다. 본고는 그 후속 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漢 이후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즉 玉이나 璽印을 매는 역할을 하던 綬가 훗날 禮服의 장식으로서 변화해 가는 과정과, 이 변화 속에 나타난 시대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중국에서 황제가 사용했던 綬에 관한 제도는 그 기록이 가장 상세하여 綬의 전체적인 변화과정을 명확히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따라서 본고는 황제의 綬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하고, 관원의 綬는 제외하도록 하겠다.

연구를 위해 중국 역대 왕조의 각 史書에 있는 輿服志, 禮(儀)志, 儀衛志 등에 나타난 문헌 내용과 그림 자료 및 유물 등을 비교·대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 제Ⅱ장 역대 綬 制度에서는 각 시대의 특징을 먼저 서술한 후, 이어서 이와 관련한 사료를 첨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현재 綬에 대한 先學들의 연구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의 後綬에 관한 고찰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의 綬를 고찰한 경우에도 몇몇 대표적인 왕조만 선택하여 고찰하였다. 이렇게 근원적인 중국의 綬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後綬를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綬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그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歷代 中國의 綬 制度 및 特徵

1. 漢綬의 연속

秦漢時期的 官印은 비교적 작아 간편하게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었으나, 위진남북조 시기를 거치면서 종이의 일반적인 사용으로 印의 크기가 커져 휴대하기 불편해졌고, 또 복식제도에 있어서도 服色에 의한 신분구별이 점차 정착되면서 漢代처럼 더 이상 綬의 길이나 밀도 등으로 신분을 구별할 필요성이 적어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들은 綬의 실용적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禮儀와 裝飾적 역할이 점점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漢 이후 들어선 魏와 晉 王朝은 漢綬의 制度를 그대로 따랐다²⁾(상세 내용 <표 1>의 漢綬 참조).

南齊 皇帝의 綬는 黃赤綬에 黃赤縹綠紺의 다섯 가지 색채를 사용하였다.³⁾

梁代부터 “大綬”의 칭호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皇帝가 朱黃大綬를 찾고, 색채는 黃赤縹紺의 네 가지가 사용되었다.⁴⁾

2. 綬帶의 분리

北齊 시기 綬制의 特徵은 첫째, 綬가 黃赤綬와 小綬의 두 개로 분리되어 기술되는데 이는 후대에 大·小綬를 구별하는 시작이었다. 둘째, 小綬의 제도에 대해 “長三尺二寸, 與綬同彩, 而首半之”라 하여, 小綬가 漢綬의 縵에서 변천해 온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皇帝의 黃赤綬는 黃赤縹綠紺의 다섯 가지 색채를 사용하고, 純黃質이며, 二丈九尺 길이에 五百首이고, 넓이는 一尺二寸으로 漢綬에 비해 좁았다. 小綬는 三尺二寸 길이에 綬와 같은 색[同彩]을 쓰나 首(편직물의 경사 단위)는 그 절반이었다.⁵⁾ 이때의 黃赤綬 길이 二丈九尺은 漢綬의 二丈九尺九寸 보다 조금 짧을 뿐 거의 비슷한 것이었다. 또 小綬의 길이, 색상, 밀도에 관한 내용은 漢綬의 “縵” 制度和 같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는데, 이로써 小綬가 縵에서 변화해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陳은 文帝 天嘉 初에 服裝制度를 개정할 때

“모두(梁)天監 때의 제도에 근거하여 수를 정하였으나 약간 바뀐 것도 있다. 지금 다른 것은 모두 사안에 따라 기록하여 언급하되, 언급하지 않는 것은 모두 변화가 없는 것이다”⁶⁾라 하였는데, 계속된 개정 내용 중 皇帝의 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때의 綬 제도가 梁制를 따랐음을 알 수 있다. 그 제도는 朱黃大綬이고 黃赤縹紺의 네 가지 색채를 사용한 것이다.

北周 皇帝의 綬는 佩玉을 연결하던 組綬와 같은 蒼靑朱黃白元縹紅紫縹碧綠의 12가지 색을 사용하였다.⁷⁾

3. 大·小綬 제도의 기본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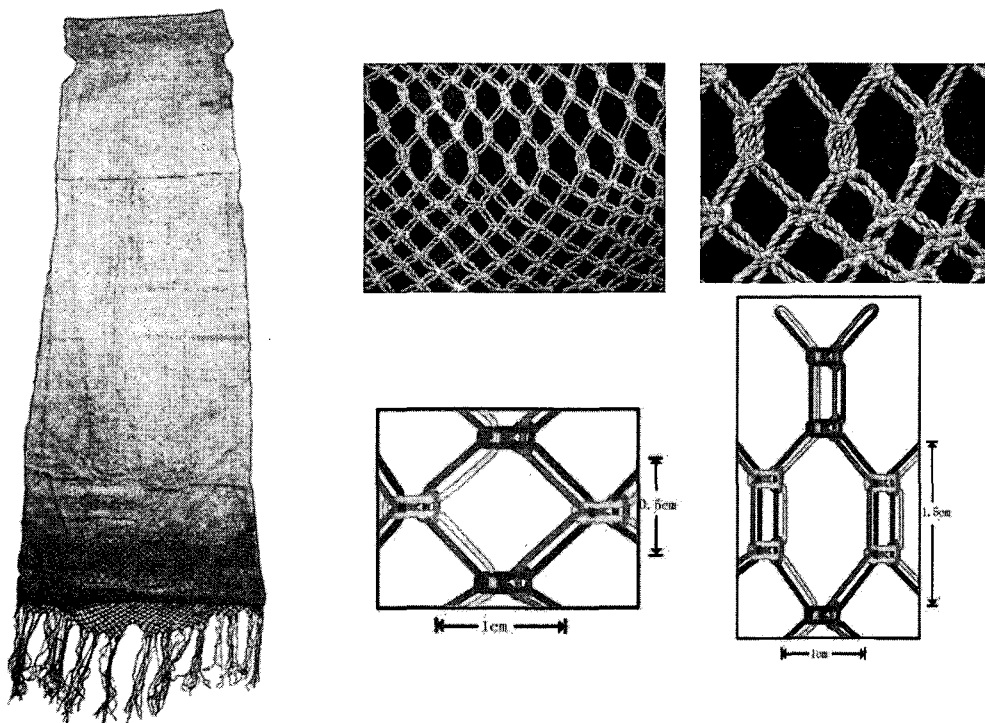
隋代 皇帝 綬의 특징은 첫째, 正式으로 大·小綬 명칭이 나타나고 둘째, 여섯 가지 색채를 사용하는 전통이 마련되어 이후 왕조에서도 거의 변함없이 받아들여지며 셋째, 漢綬 以後 처음으로 玉環을 사용한다. 즉 文帝 開皇 年間에 제정한 制度는 雙大綬가 玄黃赤白縹綠의 여섯 가지 색채를 사용하고, 純玄質에, 二丈四尺 길이이며, 五百首이고, 一尺 너비이다. 小雙綬는 二尺六寸 길이이고, 색은 大綬와 같으나 首는 그 절반이며, 사이에 玉環 세 개를 놓는다.⁸⁾ 大業 元年의 제도 역시 대부분 위와 같으나 玉環을 하나 더하여 네 개 사용한다.⁹⁾ 위의 내용을 통해 大·小綬의 길이가 이전 왕조에 비해 짧아졌음을 알 수 있다.

唐代에는 綬 제도의 변화에 있어 특별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데, 단 綬와 관련한 내용 중 주의할 요하는 부분이 있다. 『舊唐書』에서 “玄組雙大綬, 六彩, 玄黃赤白縹綠, 純玄質, 長二丈四尺, 五百首, 廣一尺. 小雙綬, 長二尺一寸, 色同大綬, 而首半之, 間施三玉環”¹⁰⁾이라 하였고, 『新唐書』에서는 “黑組大雙綬, 黑質, 黑黃赤白縹綠爲純, 以備天地四方之色. 廣一尺, 長二丈四尺, 五百首. 小雙綬, 長二尺六寸, 色如大綬, 而首半之, 間施三玉環”¹¹⁾이라 하였다. 두 책의 내용 중 색상을 기술함에 있어 “玄”과 “黑”으로 차이가 나는데 『新唐書』車服志가 玄色을 모두 “黑色”으로 기술한 것을 감안한다면, 兩者 사이의 綬制는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小綬의 길이이다. 즉 『舊唐書』의 小綬 길이가 “二尺一寸”으로 『新唐書』와 다른 것이다. 그러나 같은 『舊唐書』에서 皇太子와 官員의 綬가 모두 “長二尺六寸”¹²⁾으로 되어 있고, 漢綬 이후 전통적으로 신분이 높을수록 綬가 길기 때문에 비록 이 내용이 大綬가 아닌 小綬에 관한 것일지라도 皇帝의 綬가 그 이하 신분보다 짧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漢綬의 구성요소 중 縫이 후에 小綬로 변화되는데, 이 縫의 길이도 3尺2寸과 3尺의 두 종류가 있어 신분에 따라 길이를 달리 함). 따라서 이 부분은 『新唐書』의 내용이 맞는 것으로, 『舊唐書』의 “長二尺一寸”은 “長二尺六寸”의 誤記인 것으로 여겨진다.

宋代에 이르러 綬의 制度에 다시 한 번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大·小綬의 數量을 명확하게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編織의 綬를 대신하여 織造한 綬를 사용하였다. 셋째, 織造한 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길이에 대해 기록하지 않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길이로 신분을 구별하는 전통이 소멸되고, 또 훗날 우리가 보는 綬처럼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아래 부분에 網을 늘이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위에 結을 맺었다(“上有結”). 즉 宋初의 綬制는 여섯 가지 색채를 사용한 大綬 하나와 小綬 세 개가 있는데, 小綬에 玉環 세 개를 맺는다.¹³⁾ 太祖 建隆 元年의 制度는 “玄組雙大綬, 六彩, 玄黃赤白縹綠, 純玄質, 長二丈四尺五寸, (五百)首,¹⁴⁾ 廣一尺. 小雙綬, 長二尺六寸, 色如大綬, 而首半之, 間施三玉環”¹⁵⁾이고, 徽宗 政和三年의 制度는 “大綬, 六彩, 赤黃黑白縹綠. 小綬三, 色如大綬, 間施玉環三”¹⁶⁾이다. 또 高宗 紹興四年의 制度는 “大綬가 하나인데 靑黃黑白縹綠의 六彩로 織造하고, 아래에는 靑絲網을 늘이며, 위에는 結을 맺고, 玉環 셋을 놓는다. 小綬는 하나인데, 제도는 大綬와 같고 惟三色”¹⁷⁾라 하였다.

遼는 大同 元年 制度 중에 綬가 있으나¹⁸⁾ 상세한 기록이 없어 그 존재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金綬의 特徵은 첫째, 玉環에 雲龍을 조각하기



<그림 1> 元綬(左)와 網 세부(右上) 및 조직도1, 2(右下)
江蘇 曹氏墓 출토. 蘇州 博物館 소장

시작하였고 둘째, 綬에 金箔을 사용하였으며 셋째, 綬에 안감을 대어 겹으로 하였다. 즉 熙宗 天眷3년에 한 쌍의 綬制를 정하였는데 大綬는 赤黃黑白綠縹의 六彩로 織造하고, 紅羅로 안을 대며, 五百首로 하였다. 또 小綬는 셋인데 色은 大綬와 같고, 黃羅綬의 머리 부분에 銷金を 찍으며, 위에는 玉環 셋을 놓는데 모두 雲龍을 새기고, 首는 大綬의 半이었다.¹⁹⁾ 宋·遼·金 時期에는 金箔이 크게 유행하였는데 “銷金黃羅綬頭”중의 銷金 역시 일종의 金箔法이다. 鄭巨欣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金箔 기법이 이 시기에 대 유행했던 銷金이라 밝힌바 있다.²⁰⁾ 金箔을 찍었다는 것은 紋樣을 표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金 이전의 왕조에서는 없던 현상이다. 한편, 綬頭는 綬의 上部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銷金黃羅綬頭”는 黃色의 羅로 만든 綬의 上部에 銷金의 方

法을 이용해 무늬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元綬의 特徵은 納石失 (Nasij) 이라 불리는 織金 織物을 이용한 것이다. 즉 “玉環綬, 納石失로 만들고, 위에 세 개의 작은 玉環이 있으며, 아래에는 靑色 실로 짠 網을 드리운다”²¹⁾라 하였다. 織金은 織金錦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金線을 織入해서 織物의 表面에 金線이 나타나도록 하는 견직물을 말한다. 『元史』輿服志에서 “納石失”을 “金錦也”²²⁾라 하였는데, 이 단어는 페르시아어 혹은 아랍어의 “織金錦”의 音譯이고, 納失失 納什失 納赤思 納闌赤 納奇錫 納瑟瑟 등으로 기록되기도 하며, 清代 乾隆 이후에는 보통 納克實이라 기록하였다. 納石失은 元代의 가장 특징적인 織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江蘇 蘇州의 曹氏墓(1365年 卒)에서 綬

(〈그림 1〉)가 출토된 바 있어 이 시기의 綬를 이해할 수 있는 유물이 되고 있다. 曹氏는 元末 江蘇 지역을 중심 지지 세력으로 하여 朱元璋과 세력을 겨루었던 張士誠의 母親이다. 張士誠은 비록 朱元璋에게 패하여 결국 “帝”의 칭호를 얻지는 못했으나, 당시에 이미 江南 지역의 최고 통치자로서 스스로 “吳王”이라 칭하였기 때문에 그가 母親을 安葬할 때 사실상 皇室의 禮에 따랐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고, 綬와 함께 출토된 蔽膝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²³⁾ 따라서 여기에서 출토된 綬는 皇太后와 皇后 신분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漢代 이후 역대의 제도에서 이들의 綬는 皇帝의 제도와 같았다 하였으므로 이 유물은 또 皇帝의 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도 되는 것이다. 그 형태는 사다리꼴이고, 재료는 5枚로 조직한 幾何紋 바닥에 團龍과 團鳳紋이 들어간 綬이며,²⁴⁾ 안감은 얇은 絹으로 되어 있다. 아래에 늘어진 網 부분을 제외한 綬의 本體는 93cm, 上部 너비 22.5cm, 下部 너비 31cm이며, 上端에서 6.5cm 내려온 지점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길이는 6cm 이다. 이 오목한 부분이 접혀서 革帶에 매어졌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網은 下端에서 13cm 정도 올라간 지점에서 시작하는데 시작부분에서 각각의 “首”를 실로 고정하였고(〈조직도2〉의 상부가 이 시작 부분을 표현한 것임), 그 아래로 약28cm정도 드리워져 있는데, 下端에서 약 4cm 되는 지점까지가 網의 모양으로 編織 되어 있고 그 아래는 그대로 술 모양으로 드리워져 있다. 編織된 부분은 세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上部가 마름모꼴로 너비 약1cm, 높이 약0.5cm이고, 그 아래는 육각형으로 너비는 같되 높이가 약1.5cm이며, 下部는 다시 마름모꼴로 되어 있다(〈조직도1, 2〉 참조).

Ⅲ. 中國 綬制의 終結

明을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綬를 사용하는 전통은 막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아래에서 明代 綬 제도의 特徵과 함께, 綬에 부수되는 몇 가지 관련

내용을 이전의 王朝와 비교하여 정리해 본다.

明 綬의 특징은 織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太祖 洪武16년에 “大綬는 赤黃黑白綠縹의 여섯 가지 색채를 쓰고, 小綬는 셋인데 色은 大綬와 같고 사이에 玉環 셋을 배열한다”²⁵⁾라 하였고, 洪武 26년에는 “大綬는 黃白赤玄縹綠의 여섯 가지 색채를 사용하여 織成하고, 純玄質이며, 五百首이다. 小綬는 셋인데 色은 大綬와 같고 사이에 玉環 셋을 배열한다”²⁶⁾라 하였다. 또 成祖 英樂3년에는 “大綬는 黃白赤玄縹綠의 여섯 가지 색채를 쓰는데 縹質이며, 小綬는 셋인데 色은 大綬와 같고, 사이에 玉環 셋을 배열하며 龍文을 조각한다. (大·小綬) 모두 織成이다”²⁷⁾라 하였다.

1. 織物綬의 사용과 이에 따른 변화상

綬는 宋 이후 편직물이 아닌 일반 織物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明代에는 織成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직물을 사용한 이후에도 綬 제도 중에는 여전히 “首”에 관한 규정이 나타난다. “首”는 綬에만 전문적으로 쓰이는 經絲 단위이고 여기서 綬라 함은 편직물을 의미하므로, “首”는 일반 직물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위 명칭이다. 그렇다면 織物綬에서 “首”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중국문헌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없었다. 단 조선시대의 『英祖實錄』에 기록된 “……尙方[尙衣院]에서 스스로 짜는데 色은 五禮儀를 참작하여 赤靑玄縹綠으로 하되 무늬를 제거하고, 아래 부분은 三百二十의 制度로 하는데 [下段三百二十之制] 역시 古禮에 의거하면 된다”²⁸⁾라는 기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明 皇帝가 朝鮮의 王에게 下賜한 衣冠은 親王制를 따랐는데, 明 親王의 綬에서 首制는 “三百二十”으로 나타난다. 또 宋代 이후 綬의 下段에 網을 드리우도록 규정된다. 따라서 “下段三百二十之制”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尙方에서 짜는 綬에 網이 있었음과 함께 그 밀도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직물로 만든 綬를 사용한 이후에도 여전히 “首”라는 단위가 나타나는 것은 綬 아래에 드리운 網 때문인 것이다. 網의 등장시기가 織物綬의 사용과 함께 나

타나므로 編織物이 織物로 대체되면서 그 원래의 制織法을 網이라는 형태로 남기고자 한 것이거나, 반대로 문헌의 “首”制를 남기기 위한 방편으로 網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 두 경우 중 어떤 것이냐에 관계없이 網은 古代 綬의 制織法인 編織의 遺制인 것이다. 明代에는 皇帝의 綬制에서 網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단 官員의 綬制에 언급되어 있고, 明代의 그림 자료와 朝鮮에 下賜한 綬에 모두 網이 있으며, 또 유물에도 網이 있어 明代에 여전히 網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織物綬의 사용과 함께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網의 사용 외에, 안감이 사용되고, 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안감에 대하여는 황제의 綬制 중 紅羅가 나타나나 문양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단 朝鮮 英祖 때 편찬된 『尙方定例』에 綬의 안감으로 “丙拱 大紅雲紋紗”²⁹⁾라 하였으므로 황제의 紅羅도 문양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萬歷 皇帝의 定陵에서 출토된 綬에 안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리 엄격한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 길이에 대하여 “貳尺壹寸”이라 하였는데 이로써 걸감의 길이도 이와 같았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단 이는 親王制에 따른 것으로, 신분이 높을수록 綬의 길이가 길어지는 특징을 고려한다면 황제의 綬는 이보다 더 길 수 있다. 그러나 宋代에 織物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길이 규정이 사라진 것을 신분에 따라 길이를 달리하는 전통이 사라진 것으로 이해한다면, 明의 황제도 親王과 같은 2척 1촌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2. 綬의 佩用法

明綬(〈그림 2〉)는 革帶에 매어 뒤에 늘어뜨렸는데 이는 漢代에 옆허리에 찻던 것과 다른 것이었다. 언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알 수 없으나 다만 魏晉南北朝 시기의 자료(〈그림 3〉)에 이미 뒤에 늘어뜨린 綬가 나타난다.

3. 小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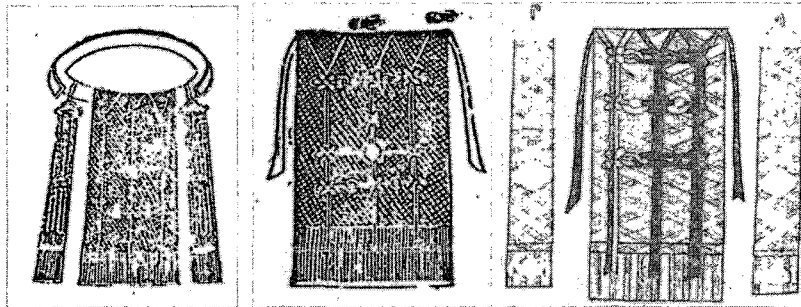
小綬는 大綬 위에 드리웠던 세 가닥의 끈(〈그림 2〉참조)을 말하며 이것이 기록에 나타나는 “小綬三”이 의미하는 바인데, 이 세 가닥의 小綬는 사실 여섯 줄의 끈을 두 개씩 묶어 세 가닥으로 만든 것이었다. 역대 小綬制에서 그 사용하는 색상은 줄곧 “同大綬”라 하였고, 皇帝의 경우 隋代 이후 大綬에 여섯 가지 색채를 사용하는 것으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小綬 역시 대부분 여섯 가지 색채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小綬 사이에 玉環을 배열하였는데 이 玉環을 사이에 두고 上下 左右로 小綬의 끈이 서로 방향을 달리하여 묶였으며, 이는 漢代의 縷과 綬가 “轉相結受”하던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여섯 줄의 끈이 세 가닥으로 되는 특징과 “轉相結受”하는 모양은 약간의 형태 변화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後綬 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위와 같이 비록 형대에 여러 변화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前代의 일정한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한 明代의 綬는 『三才圖會』, 『中東宮冠服』 및 우리나라의 『國朝五禮儀』와 『世宗五禮儀』 등의 그림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 定陵에서 출토된 유물(〈그림 4〉)과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물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定陵에서는 두 쌍의 綬가 출토되었는데 이들 두 쌍은 형태, 크기, 무늬 등이 완전히 일치하였고, 織成한 織金錦을 재료로 하였으며 素紗로 안감을 대었다. 大綬는 직사각형이고 紅黑色 바탕에 위 부분에는 織金紗로 선[緣]을 둘렀으며 아래는 紅色과 黑色을 번갈아 넣고 그 위에 紅 黑 綠 黃 月白의 다섯 가지 색을 짜 넣어 마름모꼴의 무늬를 만들었으며, 아래의 무늬는 세로줄 모양을 나타낸다. 大綬의 위에는 다섯 가지 색(深紅 淺紅 黑 黃 綠)의紗와 羅로 小綬를 만들어 사방으로 매듭을 맺었다. 단 안타깝게도 이 유물은 小綬가 파손되어 玉環이 遺失되었³⁰⁾

〈表 1〉 歷代 皇帝 綬 制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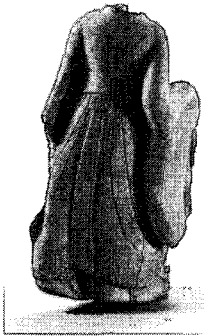
王朝	시기	綬制		길이	너비	
漢	25~220	黃赤綬	四彩：黃赤縹紺，淳黃圭，五百首	緹綬之間得施玉環鑄	二丈九尺九寸 一尺六寸	
魏晉	220~265 265~420	緹	与綬同彩而首半之		三尺二寸	
南齊	480~502	黃赤綬	五彩：黃赤縹綠紺			
梁	503~557	朱黃大綬	四彩：黃赤縹紺			
北齊	550~557	黃赤綬	五彩：黃赤縹綠紺，純黃質，五百首		二丈九尺	
		小綬	与綬同彩而首半之		三尺二寸	
陳	文帝天嘉 (560~565)初	朱黃大綬	四彩：黃赤縹紺			
北周	557~580	覆印之綬	十二色：着青朱黃白元緋紅紫緞碧綠			
隋	文帝開皇 (581~600)	雙大綬	六彩：玄黃赤白縹綠，純玄質，五百首		二丈四尺	
		小雙綬	色同大綬，而首半之，間施三玉環 (皇太子及正·從一品，施二玉環)		二尺六寸	
	煬帝大業元年 (605)	雙綬	六彩：玄黃赤白縹綠，純玄質，五百首		二丈四尺	
唐	618~907	「舊」	小雙綬	色同大綬，而首半之，間施三玉環	二丈四尺 二尺六寸	一尺
			大雙綬	色如大綬，而首半之，間施三玉環	二丈四尺 二尺六寸	
		「新」	小雙綬	黑質，黑黃赤白縹綠爲純，以備天地四方之色，五百首	二丈四尺 二尺六寸	一尺
			大雙綬	色如大綬，而首半之，間施三玉環	二丈四尺 二尺六寸	
宋	宋初	綬	一，六彩			
		小綬	三，結玉環三			
	太祖建隆元年 (960)	雙大綬	六彩：玄黃赤白縹綠，純玄質，(五百)首	二丈四尺	一尺	
		小雙綬	色同大綬，而首半之，間施三玉環	二尺六寸		
	徽宗政和3年 (1113)	大綬	六彩：赤黃黑白縹綠			
		小綬	三，色如大綬，間施玉環三			
高宗紹興4年 (1134)	大綬	一，織以六彩：青黃黑白縹綠，下垂青絲網， 上有結，施玉環三				
	小綬	一，制如大綬，惟三色				
遼	太宗大同元年 (947)	綬				
金	熙宗天眷3年 (1140)	大綬	六彩：織以赤黃黑白縹綠，紅羅托里，五百首 三，色同大綬，銷金黃羅綬頭，			
		小綬	上間施三玉環，刻云龍，首大綬之半			
元	1271~1368	玉環綬	制以納石失(金鏡也，上有三小玉環，下有青絲織網)			
明	太祖洪武16年 (1383)	大綬	六彩：赤黃黑白縹綠		(二尺一寸)	
		小綬	三，色同大綬，間施三玉環			
	太祖洪武26年 (1393)	大綬	六彩：織成以黃白赤玄縹綠，純玄質，五百首			
		小綬	三，色同大綬，間施三玉環			
成祖英樂3年 (1405)	大綬	六彩：織成以黃白赤玄縹綠，纁質				
	小綬	三，織成，色同大綬，間施三玉環，龍文				

* 唐制 중의 “新”은 「新唐書」를, “舊”은 「舊唐書」를 의미함.



〈그림 2〉 明綬¹⁾

「大明會典」에 그려진 皇帝 袞冕服(革帶에 매어짐) 의 綬(左)와, 皮弁服의 綬(中); 「中東宮官服」에 그려진 大·小綬(右). 大明會典; 中國服裝史, 1995.



〈그림 3〉 北魏 泥塑 供养人像³¹⁾
洛陽 永寧寺塔址 출토
中華人民共和國重大考古發現, 1999.



〈그림 4〉 明代 大綬 유물³²⁾
皇帝 定陵 出土
『定陵』下, 1990.

IV. 맺음말

縷·玉環·綬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었던 漢代의 綬帶는 후대에 형태와 구성요소에 변화가 나타나, 길이가 짧은 大綬와 그 위에 드리워진 小綬, 小綬에 연결된 玉環, 大綬 아래부분에 드리워진 網으로 구성되었다. 이 변화된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漢綬에서 변화해 온 것으로, 大綬는 漢代 綬帶의 구성 부분인 “綬”에서 변화해 온 것이었고, 小綬는 縷에서 변화해 온 것이었다. 玉環은 縷와 綬를 연결하던 실용적 기능을 하던 것이 후에 綬帶가 大綬와 小綬로 분리되면서 小綬에만 연결된 형태로 남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단 隋

代부터 皇太子, 三公 및 正·從一品이 玉環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이후부터 그 수량으로 皇帝와 그 이하 신분을 구별시켰고, 또 후에는 사용 재료에 따라 皇帝와 신하 그리고 관원 사이의 등급을 구별시키기도 하였으나, 본고가 皇帝의 제도를 중심으로 역대 綬制의 변화 과정을 고찰한 이유로 이러한 사항은 본문에서 생략하였다). 漢綬는 본래 編織物을 사용했었고 따라서 “首”라는 경사 단위가 사용되었는데, 宋 紹興4년부터 織物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본래의 編織 기법은 網이라는 형태로 남겨 “首”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 외 세부적인 변화 사항으로 다음의 내용이 있다. 大·小綬로 아직 명확하게 불려지지 않는 않았으나 일직선의 형태였던 綬帶가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北齊 때이고(黃赤綬와 小綬), 隋代에 정식으로 大·小綬 명칭을 사용하며, 宋代부터 그 수량이 기술되었다(大綬1, 小綬3. 이 小綬3은 후에 우리나라 관원이 사용한 後綬에서는 중간에 縱으로 두 줄씩 繡 놓은 세 개의 선으로 변함). 宋代에 編織綬가 織物綬로 대체되면서 綬에 안감을 두기 시작하였고, 元代에는 “納石失(Nasij)”이라 불리는 元 특유의 織金錦을 大綬에 사용하였으며, 明 洪武26년부터는 織成을 사용하였는데 定陵 출토 유물로 보아 역시 織金錦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金代에는 小綬의 위 부분에 銷金の 방법으로 문양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 織物綬를 사용하면 大綬의 길이가 짧아지고, 이에 따라 그 길이로 신분을 구별하던 전통이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漢 이후 隋代에 가서야 玉環이 다시 등장하고, 金代부터는 여기에 (雲)龍紋을 새기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형태상의 변화 외에 綬를 패용하는 상황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漢代의 印이 관직에 임명된 자는 모두 몸에 지니도록 되어 있고 하급 관원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綬帶와 綬囊이 함께 사용되었으나, 후대에는 綬를 평소 몸에 패용하지 않고 祭服과 朝服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참고문헌

1) 拙著 (2006). 綬에 관한 연구 -漢綬를 중심으로. 韓國

- 의 服飾文化史(蘭斯 石宙善 관장 10주기 기념논총), pp. 569-604.
- 2) “魏晉印綬與漢同.” 杜佑. 通典 卷22. 職官4 ((1988). 北京: 中華書局, p. 4216); “綬黃赤縹紺四彩.” 晉書 卷25. 志第15. 輿服 ((1974). 北京: 中華書局, p. 766).
 - 3) “綬, 乘輿黃赤綬, 黃赤縹縹紺五彩.” 南齊書 卷17. 志第9. 輿服 ((1972). 北京: 中華書局, p. 342).
 - 4) “(乘輿)垂朱黃大綬, 黃赤縹縹紺四彩.” 隋書 卷11. 志第6. 禮儀6 ((1975). 北京: 中華書局, p. 215).
 - 5) “(乘輿)黃赤綬, 五彩, 黃赤縹縹紺, 純黃質, 長二丈九尺, 五百首, 廣一尺二寸, 小綬長三尺二寸, 與綬同彩, 而首半之.” 隋書 卷11. 志第6. 禮儀6 (위의 책, p. 238).
 - 6) “定令具依天監舊事, 然亦往往改革, 今不同者, 皆隨事於注言之, 不言者, 蓋無所改制云.” 隋書 卷11. 志第6. 禮儀 (위의 책, p. 218).
 - 7) “皇帝之組綬, 以蒼, 以青, 以朱, 以黃, 以白, 以元, 以緋, 以紅, 以紫, 以縹, 以碧, 以綠, 十有二色. ……其璽印之綬, 亦如之.” 隋書 卷11. 志第6. 禮儀 (위의 책, p. 250).
 - 8) “雙大綬, 六彩, 玄黃赤白縹綠, 純玄質, 長二丈四尺, 五百首, 廣一尺, 小雙綬, 長二尺六寸, 色同大綬, 而首半之, 間施三玉環.” 隋書 卷12. 志第7. 禮儀7 (위의 책, p. 254).
 - 9) “天子以雙綬, 六彩, 玄黃赤白縹綠, 純玄質, 長二丈四尺, 五百首, 闊一尺, 雙小綬, 長二尺六寸, 色同大綬, 而首半之, 間施四玉環. 開皇用三, 今加一.” 隋書 卷12. 志第7. 禮儀7 (위의 책, p. 273).
 - 10) 舊唐書 卷45. 志第25. 輿服 ((1975). 北京: 中華書局, p. 1936).
 - 11) 新唐書 卷24. 志第14. 車服 ((1975). 北京: 中華書局, p. 514).
 - 12) “(皇太子)小雙綬長二尺六寸, 色同大綬而首半之, 施二玉環也.”; “自王公以下皆有小雙綬, 長二尺六寸, 色同大綬而首半之, 正第一品佩二玉環, 自外不同也.” 舊唐書 卷45. 志第25. 輿服 (위의 책, p. 1940, 1945).
 - 13) “六彩綬一, 小綬三, 結玉環三.” 宋史 卷151. 志第104. 輿服3 ((1977). 北京: 中華書局, p. 3523).
 - 14) 이 구절의 原文은 “首”만 있으나 역대의 綬制를 고려해보면(본문 <표>참조) 앞에 “五百”이 탈락된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首”를 “五百首”로 보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 15) 宋史 卷151. 志第104. 輿服3 (위의 책, p. 3523).
 - 16) 宋史 卷151. 志第104. 輿服3 (위의 책, pp. 3523~3529).
 - 17) “大綬一, 織以青黃黑白縹綠之六彩, 下垂青絲網, 上有結, 垂玉環三, 小綬一, 制如大綬, 惟三色.” 宋史 卷151. 志第104. 輿服3 (위의 책, p. 3529).
 - 18) “(漢服)袞冕, ……劍佩綬.” 遼史 卷56. 志第25. 儀衛志2 ((1974). 北京: 中華書局, p. 908).
 - 19) “綬一副, 大綬以赤黃黑白綠縹六彩織, 紅羅托里, 小綬三, 色同大綬, 銷金黃羅綬頭, 上間施三玉環, 皆刻雲龍. 大綬五百首, 小綬半之.” 金史 卷43. 志第24. 輿服中 ((1974). 北京: 中華書局, p.977).
 - 20) 鄭巨欣 (2004). 中國傳統紡織印花研究. (上海)東華大學校 博士學位論文(趙豐(2005). 中國絲綢藝術史. 北京: 文物出版社, p. 90 재인용).
 - 21) “玉環綬, 制以納石失, 上有三小玉環, 下有青絲織網.” 元史 卷78. 志28. 輿服1. 冕服((1976). 北京: 中華書局, p.1931). 『元史』에 기록된 이 내용은 『太常集禮』를 인용한 것인데, 『太常集禮』는 晉宗 泰定 4年(1327)에 완성된 책이다(元史 卷183. 李好文傳. (위의 책, p593)). 해당 내용에 대한 『元史』의 서술 순서를 보면 먼저 위의 내용을 서술한 후, 이어서 至元 12年(1275), 大德11年(1307), 延祐7年(1320)의 冕服 제도에 대한 논의 과정을 서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논의를 거쳐 泰定 4年에 『太常集禮』로 관련 규정이 집대성 된 것으로 보인다.
 - 22) 元史 卷78. 志28. 輿服1. 冕服 (앞책, p. 1931, 1938).
 - 23) 曹氏 墓에서 출토된 蔽膝 위에는 翟紋이 있는데 한 쌍씩 짝을 이루어 여섯 쌍이 세 줄[三等]로 그려져 있다. 『大明會典』에 의하면 明의 洪武3年(1370)에 皇后 禮服의 衾衣에 부속되는 蔽膝에 翟紋 三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후 永樂3年(1405)에 翟紋 三等을 織造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后妃의 冠服 중에서 蔽膝의 무늬를 三等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皇后의 禮服에서만 가능한 것이었고, 기타의 皇妃·皇太子妃·親王妃 禮服의 蔽膝에는 雉나 翟을 단지 二等만 사용할 수 있었다(大明會典 卷60. 禮部18). 따라서 이 蔽膝은 皇后의 제도에 같음을 알 수 있고, 皇后와 皇太后的 服制는 같으므로 張士誠이 母親을 皇室의 禮에 따라 安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24) 中國絲綢博物館 (2005). “黃金/絲綢/青花瓷-馬可波羅(마르코폴로)時代的時尚藝術”展圖錄. 香港: 藝紗堂, p. 89.
 - 25) “大綬六彩, 赤黃黑白縹綠, 小綬三, 色同大綬, 間施三玉環.” 明史 卷66. 志第42. 輿服2 ((1975). 北京: 中華書局, pp. 1615~1616).
 - 26) “大綬, 六彩(黃白赤玄縹綠)織成, 純玄質, 五百首. (凡合單紡爲一繫, 四繫爲一扶, 五扶爲一首). 小綬三, 色同大綬, 間施三玉環.” 明史 卷66. 志第42. 輿服2 (위의 책, p. 1616).
 - 27) “大綬, 六彩(黃白赤玄縹綠), 繡質, 三小綬, 色同大綬. 間施三玉環, 龍文, 織成.” 明史 卷66. 志第42. 輿服2 (위의 책, p. 1617).
 - 28) 英祖實錄 23年2月 “……例自尙方造成, 而色則參酌五禮儀, 赤青玄縹綠, 去紋, 而下段三百二十之制, 亦依古禮爲之可也.”
 - 29) 柳喜卿. 앞의 논문, p. 9 재인용.
 - 3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等 (1990). 定陵(上). 北京: 文物出版社, p. 121.
 - 31) 『中華人民共和國重大考古發現』編輯委員會 (1999). 中華人民共和國重大考古發現. 北京: 文物出版社, p. 332.
 - 3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等. 앞의 책, 圖101.